'92년도 전자부품산업의 전망과 대응

손 욱
삼성전기(주) 전무

1. 부품기업의 시각으로 본 환경변화

1) BLOC화에 직면한 경제환경

○세계경제권의 BLOC화로 전자시장 역시 유럽권(EC, EFTA), 미주권(NAFTA), 아시아권(일본, NIES, ASEAN)으로 3분되어 있고 각 경제권은 역내 산업보호를 내세워 역외로 부터의 수입을 대폭 제한하고 있는데, 전자부품 역시 예외가 아니다.

<세계 경제권별 수입규제내용>

E C	NAFTA	ASEAN
• 수입물량 제한 QUOTA책정 GSP CLILLING • 가격규제(P/U) —ANTI-DUMPING 관세 • Local Contents Rule —현재 45%이상	규제사항은 동일하나 적용대상이 다름 (지역국가, 품목) • 3국가 FTA가 '91. 하 발효 —Local Contents 추진(70%설정 가능)	• 역내 국가별 관세 혜택 • 불가결한 품목만 수입 —생산원자재, 필수민수품 등 • 품질에 대한 수입규제 강화 조짐 —현지생산 유도

2) 구조조정기를 맞은 국내부품업계

○고도성장기의 '80년대를 보낸 국내 일반부품업계는 국내외 경영여건의 악화로 인해, '90년대는 구조조정기가 될 전망이며 치열한 경쟁의 과정을 거치면서 부실업체의 도산 및 M&A 등을 통해 부품업계의 질서가 재편되는 '90년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.

○국내 부품업체의 도산 및 M&A 사례

—작년 6월 1일자로 금성전기가 금성통신에 흡수합병된 것을 비롯하여

—해주전자(PCB) : PCB사업 포기, 기업매각('91. 6)

—대 방(PCB) : 유원전자로 흡수합병('91. 7)

—유 니 크(PCB) : 모기업인 동화기업에 흡수합병('91. 7)

—영원통신(SMPS) : 극심한 자금난으로 법정관리 신청('91. 1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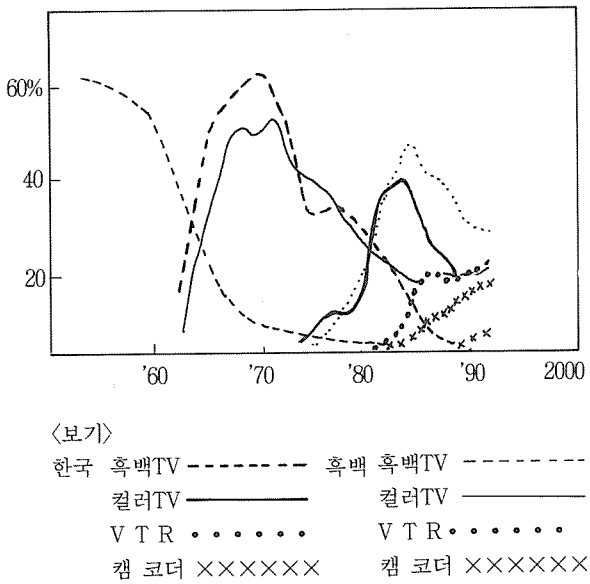
3) 가전산업의 HIT상품 부재

○일반부품의 최대 수요처인 가전산업은 우리나라의 경우「라디오('61~'65)→흑백TV('65~'75)→컬러TV('80~'85)→VTR('85~'90)」등과 같이 주력제품의 교체가 이루어져 왔으며, 일본은 우리보다 5~10년 앞서 세대교체를 했음.

○그러나 '80년대 후반이후 주력제품이었던 컬러TV, VTR의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뚜렷한 HIT상품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,

○'90년대 들어 본격적인 보급기로 들어서고 있는 캠코더, CDP, LDP 등 새로운 AV제품들도 가전시장을 주도할 만한 수요창출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, HDTV가 본격 보급되는 '90년대말까지는 HIT제품 부재의 시대가 지속

<한 · 일 주력가전제품 변화추이>
*가전제품 생산액(100%)중 구성비



되는 「Troubled Water(혼란상태)의 '90년대」가 될 전망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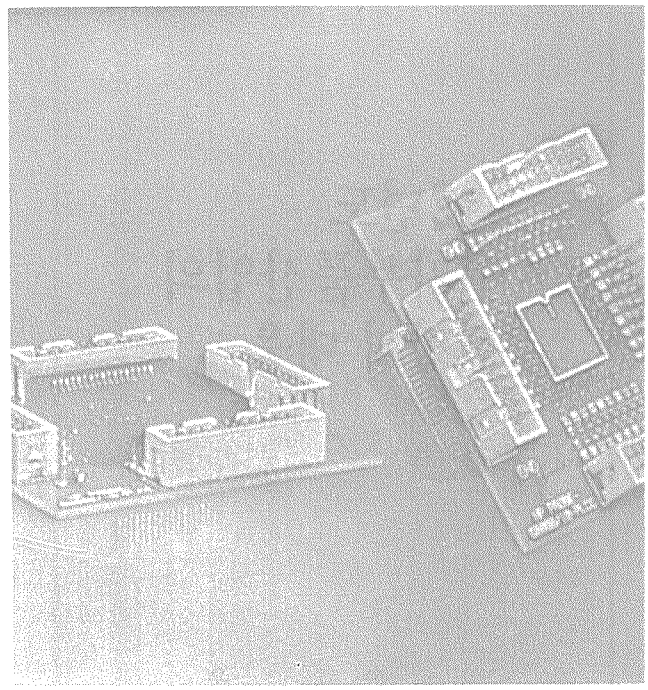
2. '92년 부품산업 전망

1) 일반전자부품산업의 최근동향

○금년 1~8월중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15.9% 성장률을 시현해 예년수준과 비슷한데
—수출증가율이 9.5%를 기록했고, 로칼은 12.4% 증가해 작년의 감소세에서 반전하였으며, 대신 내수가 .4% 성장에 그치는 부진함을 보이고 있다.

<일반전자부품의 경기동향('91. 1~8)>

구 분		'90. 1~8(증감률)	'91. 1~8(증감률)
생 산	백억원	282(15.2%)	327(15.9%)
수 출	억 $	19.0(5.4%)	20.8(9.5%)
로 칼	억 $	12.9(-2.2%)	14.5(12.4%)
내 수	백억원	48.6(8.0%)	48.8(0.4%)



○품목별 생산 및 수출실적을 보면
—TV품목, AUDIO품목이 호조인 반면, VTR 부품은 저조
—범용부품 : PCB가 부진, 콘덴서 · 저항기 · AC모타는 호조세(MLCC, CHIP저항 등 첨단부품의 부진이 특이함)

2) '92년 일반전자부품산업 전망

(1) '91년 추정

○생산이 전년대비 13.2%증가, 로칼은 전년의 마이너스성장에서 탈피
—전년수준을 웃도는 호조세는 상반기중의 가전수출 호황이 원인

○반면에 수출이 9.9%로 아직 미진, 내수는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.

(2) 부품산업 전망의 근거

○부품수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SET의 내년도 수출전망을 보면(전자신문사 발행, 전자저널 12월 5일자)
—대부분 증가율이 10%이하로 금년 수준을

〈품목별 생산 · 수출('91. 1~8)〉

(생산 : 억원, 수출 : 백만$)

	생산	수출		생산	수출
〈TV부품〉			〈범용부품〉		
전자식튜너	1,594	52.8	P C B	1,128	71.8
	(30.3)	(10.2)		(-7.9)	(49.7)
D Y	652	17.9	콘 덴 서	2,603	102.2
	(37.0)	(33.6)		(20.1)	(15.6)
F B T	750	28.9	-전 해	1,190	40.9
	(37.3)	(57.5)		(10.7)	(7.3)
〈VTR부품〉			-세라믹	428	11.1
VTR-HEAD	240	8.4		(34.8)	(4.1)
	(-29.2)	(-68.6)	-MLCC	23	0.6
VTR-DECK	707	6.7		(-77.9)	(-84.7)
	(6.5)	(13.6)	저 항 기	1,364	29.2
〈Audio부품〉				(24.5)	(0.3)
스 피 커	1,394	133.8	-CHIP	167	0.9
	(24.4)	(25.2)		(5.0)	(113)
Audio Head	138	3.1			
	(21.1)	(-52.3)			
Audio Deck	123	2.4			
	(73.2)	(140)			

(주) ( )는 전년동기비 증감률임.

〈주요 SET의 '92년 수출전망〉

(억$,%)

구 분	'91년 추정	'92년 전망	전 망 근 거
C T V	15.3(13.5)	16.5(7.8)	• 소동구향 둔화, 동남아산의 추격
V T R	12.5(9.6)	13.8(10.4)	• 올림픽 특수, 4헤드 수출 증가
AUDIO	15.6(-10.2)	14.0(-10.3)	• 동남아, 중국산의 추격 심화
컴 퓨 터	21.0(7.9)	21.7(3.1)	• PC시장침체, 대만산과의 경쟁심화
통 신 기 기	15.8(14.9)	17.0(7.6)	• 가격경쟁력 열세, 기술미흡

*( )는 전년대비 증감률임.

밑돌 것으로 전망된다.

(3) '92년 전망

○금년보다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한해가 될 전망이다.

—생산 및 수출이 금년대비 8%대의 성장에 머물고

〈'92년 일반전자부품산업 전망〉

구 분	'89실적	'90실적	'91추정	'92전망
생산(백억원)	403	433	490	530
	(6.6)	(7.4)	(13.2)	(8.2)
수출(억 $)	25.7	28.4	31.2	33.6
	(5.8)	(10.5)	(9.9)	(7.7)
로칼(억 $)	21.3	19.7	21.7	23.2
	(-7.8)	(-7.5)	(10.2)	(7.0)
내수(백억원)	63	75	73	77
	(14.5)	(19.0)	(-2.7)	(5.5)

〈'92년 전자산업의 생산 · 수출전망〉

(생산 : 백억원, 수출 : 억$)

구 분	'90실적	'91추정	'92전망		
			貿協	電子	三星
생 산	2,104	2,279			2,523
	(9.5)	(8.3)			(10.7)
산 업 용	466	488			519
	(13.8)	(4.7)			(6.4)
가 정 용	726	765			798
	(4.1)	(5.3)			(4.4)
전자부품	911	1,026			1,206
	(10.4)	(12.6)			(17.6)
수 출	172.1	187.1	11.8%	7.1%	207.3
	(3.9)	(8.7)			(10.8)
산 업 용	34.8	35.5	10.3%	5.0%	37.8
	(-0.3)	(2.0)			(6.5)
가 정 용	55.3	56.1	11.1%	1.7%	57.5
	(-4.7)	(1.5)			(2.5)
전자부품	82.0	95.5	12.8%	10.9%	112.0
	(12.8)	(6.5)			(17.2)

(주) • ( )는 전년대비 증감률

• 貿協=무역협회, 電子=電子新聞社, 三星=三星經濟硏究所 資料

—로칼과 내수도 6%대 증가라는 불투명한 상태가 지속될 전망이다.

○내년에 예상되는 마이너스 요인

—가전산업의 내수부진, PC분야의 수출부진으로 로칼 · 내수 저조

—국내 경제성장세 둔화, 구미 경기부진으로 수출환경 악화

3) 일본의 전자산업 전망

○'91~'92년중 내수축소·수출확대로 5%대의 생산증가 전망이다.

—'91년 생산 24.8조원(전년비 4.8%↑)→'92년 26.1조원(5.3%↑)

○일반전자부품의 '92년 전망

—AV기기, PC관련기기의 수요정체로 큰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우나 미국 및 동남아지역의 SET생산분에 대한 부품수출증가에 기대

<일본전자산업의 '92년 전망>

(단위 : 억엔,%)

구 분	'91	'92	증감률	시 장 동 향
〈AV기기〉				•CTV : 대형화 추세도 주춤
CTV19"↓	1,380	1,330	-3.6	•HDTV보급이전의 공백('93~'97)
20"↑	7,650	8,300	8.5	을 Wide Vision으로 대체할 움직임
거치형VTR	9,350	8,980	-4.0	•거치형VTR감소, 캠토더도 미진
캠 고 더	8,580	9,600	11.9	•DCC, MD의 부진으로 Audio도
R/C S T	904	856	-5.3	침체 지속
〈정보통신〉				
P C	9,800	10,500	7.1	•PC관련기기는 5%이하 저성장
H D D	8,410	8,730	3.8	—32비트, NOTE형의 수요정체
F D D	1,550	1,480	-4.5	—해외생산확대로 수출감소
F A X	4,276	4,235	-1.0	—경쟁치열, 단가하락 가속화
복 사 기	5,070	5,150	1.6	•이동체 통신기기에 기대
〈전자부품〉				
R A M	7,700	9,220	19.7	•4M 수요혼미, 16M로 Shift
일 반 부 품	37,500	40,275	7.4	•PCB, SMPS, 커넥터 등이 부진

*일본의 일반전자부품업계도 경영실적이 매우 저조

- 주요 33사의 중간결산('91.9월기) 결과를 보면
- 매출신장 저조 : 전년동기대비 6.5%의 소폭증가에 그침
  —전년동기수준에도 못미친 업체가 6사(18%)
- 이익은 크게 감소 : 전년동기비 경영이익 3.0%↓, 순이익 3.8%↓
  —경영이익면에서 18사(55%)가 전년동기 수준보다 낮아짐
- 경영부진 요인

┌PC시장 침체, 구미 경기둔화로 수출부진
└민간업체의 설비투자 하향조정

3. 부품업계의 대응전략

앞에서 살펴 본 부품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마이너스 요인들, 즉 Troubled Water가 예상되는 가전산업과 구조조정기를 맞은 부품업계의 현실 등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?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세계 일반전자부품 시장을 완전 장악하고 있는 일본 부품업계의 움직임을 살펴 보면

1) 일본 일반전자부품업계의 최근동향

○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여러가지 전략(21세기 Vision 제시, '90년대 주력제품 개발, 기초연구 강화, Made in Market과 Design in Market 등)을 더욱 강화함은 물론, 최근에는 「①부품판가의 인상추진 ②납입체제의 재정립, ③제안형 Business의 전개」 등을 통해 경영의 합리화 및 수익성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.

(1) 부품판가의 인상추진

○예년 9월은 SET업계가 부품업계에 판가인하를 요구하는 시기였지만 금년에는 반대로 부품업계가 판가인상을 요구함.

—부품업계의 판가인상 움직임은 작년말부터 시작되었지만, 하나의 조류로 크게 부각된 것은 수요정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금년 여름이후

○배경 : 재료·소재의 가격상승, 물류비용의 증가로 수익성 악화

○촌전제작소의 사례

—DY, FBT, 고압콘덴서, 고압저항기 등의 판가인상 추진

—소LOT품은 작년말대비 5~6%, 특수품은 10~15%인상 교섭중

—강재·Ferrite 등 재료비 상승, 설계·금형·관리면에서의 Cost 상승으로 적자품목이 되고 있기 때문

(2) 납입체제의 재정립

○품종의 통폐합, 범용부품의 표준 Package수 재정립, 우수리제품(보수용 및 재고품)의 납입폐지 등을 추진

○배경 : SET업계의 다품종화에 따른 부품수의 증가가 생산효율의 악화는 물론 물류비용의 상승을 초래

○송하전자부품의 사례

—금년 9월부터 품종의 통폐합, 범용부품의 표준PACKAGE수 재정립 등을 추진(영업, 기술, 구매 중심으로 Project팀을 구성)

—현재 컴퓨터에 등록된 20만점을 1년간 10만점으로 축소할 계획

• 20만점중 7만점만 항시 주문품종, 7만점은 보수용 품종이며, 나머지 6만점은 등록건명만 남고 주문없는 품종

—1천여개 거래선과 협의하여 1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

(3) 제안형 Business의 전개

○지금까지의 판매망 확충, 철저한 서비스 등의 마케팅활동에서 더 나아가, 기능이 복합화된 품목을 STT업체가 충분히 이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, 즉 USER의 요구를 받고 행동하기 전에 그 요구를 선취하여 제안하는 제안형 Business를 전개하고 있는데

—이를 위해 Engineer-Salesman의 정착화 및 Soft적인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있음.

○대표적인 사례품목이 SMD와 Noise대책부품임.

SMD : 실장방법 등의 기술을 어드바이스

Noise대책부품 : NOISE측정실을 설치하여 부품의 공동개발, 정보제공, 컨설팅 등의 활동 전개

○대표적인 사례

—ALPS전기 : 년1회 「Alps Show」개최

—미쯔미전기 : 2년에 1회 「마쯔미 Show」개최

—Hosiden : 년간 100회의 거래선별 「미니전시회」개최

—村田製作所 : 거래선을 대상으로 연간 10여회의 「EMC 세미나」 실시→1회마다 200~300명씩 참가하여 성황을 이룸

2) 부품업계의 대응전략

○악화되는 경영환경보다 심각한 문제는, 소폭이나마 매출은 증가해도 갈수록 수익성이 악화되는 국내 부품업계의 허약한 제품경쟁력임.

○더구나 부품업계는 업계질서의 재편이 가속화되어 업체간 이전투구의 양상을 보일 것임.

○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

—단기적으로 수익성 확보에 전력하고

—중기적으로는 제품경쟁력을 확보하여

—장기적인 시각에서 기업변신을 도모해야 함.

	단 기 전 략	중 기 전 략	장 기 전 략
기본방향	경영합리화를 통한 수익성 확보	경쟁력 확보를 통한 생존기반 구축	기업변신으로 성장·확대를 도모
세부추진전략	• 철저한 원가절감 —고정비 절감 (간접인건비, 제반경비) —선별투자 및 투자효율 제고 • 경영구조 개선 —조직, 인력의 SLIM화 • 조직분위기 활성화	• 제품경쟁력 확보 —가격경쟁력 확보 —선진품질수준달성 • 생산시스템 개선 —성력화(자동화) 확대 • 영업력 강화 —전사원의 마케팅 노력 —기술영업체제 구축 —해외판매거점 확충	• 사업구조 변신 —기존사업의 선택적 집중화 —유망신규분야진출 • 기술력 확보 —선진과의 기술격차 축소 —독자적 우위기술분야 확보 • 국제화 전개 —Made in Market —Design in Market